

2011 새해에는

최종대 산단공 호남권본부장

“신규 산단 조성해 부지난 해소”

“지역 기업들이 부지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산단 부지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 산단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종대(48)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장은 지난 28일 본부장실에서 “부당한 지 10일밖에 안됐지만 지역 기업들로부터 ‘산단 부지를 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다”며 “부지난 해소가 호남권본부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올해 역할 사업에 대한 수도권 기업 호남권 이전 광역 클러스터 사업 주력



수도권 기업 호남권 이전 광역 클러스터 사업 주력

권과는 광·의료기기를 융·복합화해 신규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미니클러스터 참여 기업들의 R&D 지원과 시제품 개발, 글로벌 마케팅을 위해 100여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도 추진한다. 호남권본부에 설치된 ‘동반성장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산업현장에서 겪는 불공정거래 등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원 해결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산학 연계 기능을 확충하고 산학 간의 유기적인 인력교류 확대를 위해 시범 조성하는 산학융합지구의 호남권 유지에도 전력을 바친다.

최 본부장은 또 “산단의 구조조도와(QWL)밸리 조성)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산업단지를 일터·배움터·쉼터로 변모시킬 것”이라며 “먼저 익산산단부터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20년 전 여수와 군산에서 근무하며 호남과 인연을 맺었다. 특히 첨단산단 조성 초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관 업무를 담당해 첨단산단 성장의 기초를 닦았다.

최 본부장은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강릉고와 경희대 공대를 졸업하고 한국외대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90년 산업단지공단에 입사해 조사협력부장·기획부장·총무부장·전략사업처장·기획조정실장·총경권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光銀 '파워워블리저' 출시



광주은행이 월복리 적립식 예금상품인 'KJB파워워블리저'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3년 이내 1만원 이상 자유롭게 가입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최고 0.7%까지 다양한 우대금리를 준다. 광주은행 신용카드 결제 실적에 따라 최고 0.2%포인트, 급여우대통장을 보유한 고객에게 0.1%포인트의 '셀러리맨 Happy 우대금리', 신용카드가맹점 결제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 0.1%포인트의 '가맹점 결제계좌 우대금리' 등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호남 금융민원 절반 “보험 불만”

금감원 광주지원, 작년 1만774건 처리...전년비 33.5%↓

지난해 호남(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에 접수된 금융민원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접수된 민원 중 절반 이상은 보험관련 민원으로 여전히 보험에 대한 불만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처리된 금융민원은 총 1만 774건으로 전년에 비해 5423건(33.5%)이 감소했다.

서민민원은 1년 전에 비해 보험, 비은행, 은행 민원 모두 각각 34.5%(604건), 27.3%(196건), 3.4%(22건) 감소했다.

이중 보험 민원이 1148건(49.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은행 민원은 628건(27.3%), 신용카드사·저축은행 등 비은행민원은 521건(22.6%)으로 조사됐다.

보험 민원에서는 상품설명 불충분, 자필서명 미이행 등을 이유로 납입 보험료 환급을 요구하는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726건(63.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처리건수는 전년보다 526건(42.0%)이 줄었다.

은행과 비은행민원의 경우 대출취급 및 대출 사후관리 등 대출관련 민원이 150건(23.1%) 감소한 498건(43.3%)를 차지했다.

반면 예·적금 관련 민원은 153건으로 전년보다 19건(14.2%) 증가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엑세서리엔 벌써 봄이 왔어요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이 30일 입춘을 앞두고 화사한 컬러의 봄 액세서리를 선보였다. /연필뉴스

은행권 CEO 대폭 물갈이 예고

광주은행장도 3월 임기만료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의 임기가 오는 3월 잇따라 만료되면서 후속인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그룹은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송기진 광주은행장, 이종휘 우리은행장, 박영민 경남은행장 직무대행 등 최고경영자들의 임기가 3월말로 모두 끝나 후속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우리금융지주는 28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오는 3월 이팔성 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위원들을 선임하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회추위는 공모를 통해 회장 후보를 물색하고 검증 작업을 거쳐 차기 회장 후보를 단독으로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후 오는 3월 4일 열리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3월 25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차기회장 선출작업을 진행 중인 신한금융지주도 29일까지 후보자 명단을 선정, 3월 정기주총 전인 2월 중순까지 차기회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신보, AI 피해업체 특례보증

광주신보보증재단(이사장 김재욱)은 30일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31일부터 '구제역 및 조류독감 피해업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지원 대상은 구제역 및 AI 피해를 입은 축산·가금류 관련 가공업이나 유통·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차진전문점, 육류도소매업, 육가공업체, 관련 음식점 등이다.

보증금액은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액 전액에 대해 100%보증하는 전액보증을 실시하고 보증료도 1% 고정요율을 적용한다. 보증기간은 5년 만기이며,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한다. 문의 062-950-0099, 0033.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중 내수·소비 관련주 주목

중국발 긴축 우려로 두 자릿수 하락을 경험한지 일주일도 안돼 국내증시는 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치 신고와 삼성전자 백만원대 추가 안착에 성공했다.

지난 금요일(28일) 증시는 전일 S&P의 일본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연하 약세 우려와 일부 업종에 대한 수급 교란으로 장중 20포인트에 가까운 급락을 보였으나 이를 기회로 삼은 개인자금이 유입돼 낙폭을 만회하면서 2,100선에 안착했다.

증폭에 대한 선별적인 대응 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번 주 지수 움직임은 다소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이다. 외국인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매매의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데다 미국 주요지수가 9주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는 3월간의 설 연휴와 중국의 춘절 연휴에 따른 영향으로 투자자들이 매매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커 이에 따른 거래 감소도 지수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지수 변동성 확대 전망과 함께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 2010년 기세가 좋았던 신흥국 지수가 10% 이상 조정 받으면서 국내증시도 조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증시와 여타 조정 폭이 컸던 신흥국 증시는 크게 네 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2010년 지수 상승 폭이 국내증시보다 컸으며, 베트남에선 국내 증시에 비해 높다.

두 번째로 국내 증시의 수급 구조가 연기금이나 자문펀드, 퇴직연금 등으로 비교적 탄탄한 편이라 외국인 매도가 진행되더라도 낙폭이 제한적이지만, 대부분의 신흥국가는 내국인 수급 여건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국내증시에 비해 낙폭이 클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국내 증시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지만 여타 신흥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내로라하는 기업이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숫자가 적다.

네 번째는 국내 증시가 아직 온전한 선진국이라 보기 어려워도 이미 FTSE 선진국지수에 편입되어 있고, MSCI 선진국지수에도 조만간 편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등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에 보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차별화의 요인이다.

결론적으로 국내증시가 이번 주 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은행이나 삼성증권 등 대표 증권주, 제일모직, 대우인더, 호텔신라, SK C&C, LG상사 등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기술적으로도 양호해 보이는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는 조정시 매수 대응의 시각을 유지한다.

또 점진적인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성장의 촉을 '수출과 투자'에서 '소비'로 이전시키고 있는 중국의 경우 임금인상과 위안화 절상 효과로 중국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결국 중국 내수·소비 관련 업종 주주는 재차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아이엘리시아 아이엘리시아 검색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총)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총)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 GRAND OPEN

OPEN 기념!

객실(1박)+조식뷔페2인 포함 (양식, 한식 20가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층별 시설안내

- 5F 블라자호텔(웨딩홀) 카네기홀(연회장)
- 4F 객실, 신부대기실
- 3F 객실
- 2F 객실, 윌트니스센터
- 1F 프런트, 커피숍,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연회상당실
- BF1 대연회장, 폐백실

*비즈니스맨을 위한 전문호텔 *전객실 인터넷 사용

객실예약 | (062) 600-9999 예식연회예약 | (062) 362-0011,002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61번지(삼우지구 플랜터 옆) | www.hotelarthall.co.kr